

숲정이

2011년 1월 1일 (가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전주교구 주보

2010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대희년 10주년을 맞이하며”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2003호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14@hanmail.net
주소 | 560-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전화 | (063)230-1004 팩스 | (063)283-9365

세계 평화의 날에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주교구장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항상 지켜주시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를 마음속 깊이, 그리고 민족 전체에 충만히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최근 연평도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에, 60년 전의 육이오 전쟁 이후 가장 아슬아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해 첫날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내는 평화의 날이, 금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 감정이나 정치적 책략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그분을 세상에 낳아 주시고 스스로 평화의 모후가 되신 성모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요한 14,27) 하신 그 평화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특히 어떤 의미에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우리 사회와 나라에도 참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려면, 하느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먼저, 인간적 계산이나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구원하신 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하느님 앞에서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대그 함마술트는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마련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먼저 하느님과 상의했습니다.

위대한 신앙가였던 그는 반대파의 테러에 의해 19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습니다. 정의나 진리를 위해 뛰어들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은 예수님 이래 늘 되풀이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는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 하고 대답하나이다.”



이러한 신앙은 부모님의 절대적 영향 속에서 성숙해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삶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주셨다.”

지금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그들을 키워낸 세대, 곧, 부모, 교육자, 사회 전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점점 더 삭막하게 되고 코앞의 이익에 이토록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모습은 그 뿌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한, 세상은 점점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 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기,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기,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갈라 5,19-21).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느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정 반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갈라 5,22-23)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대그 함마술트 같은 신앙인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네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 이 되었다.”(로마 4,18)고 바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빵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부요, 경제제일주의의 유혹, 그것이 주는 큰 착각에 빠져, 개인생활에서부터 나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허우적거리며, 최근에 드러난 남북간의 긴장 국면도 그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게 하는 악마의 유혹에 맞서 예수님께서 응수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와 국민 전체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이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고 하지 않았느냐?”(마태 4,4).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상당 수가 신앙인이고, 정치인 가운데에는 그 비율이 더 큼니다. 그런데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정치판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 무언가 크게 잘못 된 데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들을 뽑은 우리 국민, 특히 신앙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념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진 나라로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가, 그 이념이 거의 사라져가는 지금에 와서, 엉뚱하게 또 다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극의 현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평화의 모후께서 전구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시도록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예제 18,32).

종교 자유, 평화의 길

새해의 시작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안정과 번영, 특히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프게도 지난 한해는 박해와 차별, 그리고 폭력과 종교적 불용의 잔혹한 행위들로 얼룩졌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시리아 예벳 천주교회인 이라크 바그다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주교좌 성당에 가해진 잔인무도한 공격으로 당시 미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사제 2명과 신자 50여 명이 사망한 참사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목숨을 내걸지 않는 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으며, 도덕적 자유의 근원입니다. 종교 자유가 부인될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인간 존엄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정의와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각 사람은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공공장소에서나, 사적인 곳에서나, 가르침으로, 행동으로, 출판물로, 예배로, 전례 의식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고 천명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 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충실히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존엄은 축소되고 훼손되어, 우상들의 지배, 절대화된 상대적 선들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될 위험에 놓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를 각종 정치적 이념적 전체주의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체주의는 공권력을 강조하는 반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마치 잠재적인 정적인 것처럼 비하하고 규제합니다. 폭력으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종교를 거부하는 사회는 하느님과 개개인에 게뿐 아니라 그 사회 자체에도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 자유는 건전한 정치 문화와 법률 문화가 이룬 업적이기도 하며, 종교인들만의 배타적인 유산이 아니라 지구촌 가족 전체의 유산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이 나누는 대화는 교회가 공동선을 위하여 모든 종교 공동체들과 협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회 자신은 모든 종교의 옳고 거룩한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교에 기초한 박해, 차별, 폭력과 불용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종교 자유를 촉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종교 자유는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군사적 경제적 패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만적 계략이나 간교한 조작의 결과는 더욱 아닙니다. 그보다 평화는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참여하는 정화의 과정과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고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종교 자유는 심각한 불의와 물질적 도덕적 빈곤에 직면해서도 정의와 평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지상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회가 하루빨리 평화의 길인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12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